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평양 7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수통지, 박대성통지, 최휘통지, 박대미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이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쟁로병들이 양형설통지, 비명수통지, 대총수통지, 죄영렬통지, 비용무통지, 오극렬통지, 김시학통지를 비롯한 대회참가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통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통지, 김평해통지, 오수용통지, 안정

통지, 성, 중앙기관 일꾼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통지를 비롯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예 국가가 장중하게 주약되었다.

위대한 낸데의 승리자들에게 전투적 경례를 드리며 『7. 27행진곡』의 노래 선율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승절의 찬회가 차넘치는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의 최고사령관』, 남성 3중창과 함께 합창 『위대한 낸데의 승리자들에

게 경의풀 드린다』, 혼성 2중창 『전승의 속로여 말하라』, 무용 『속사리인민들과 함께』, 가야금 명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닥털한 명군술,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헌신으로 세계전쟁사에 류에 없는 전승실효를 창조하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편전련승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불비축을 해치며 전직로

를 열면 가렬한 전화의 나날 싸우는 고 지마다에 울려퍼진 『경전의 길로』, 『전 호속의 나의 노래』, 『분경고개』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전쟁로병들에게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전투적

기상과 혁명적왕만을 담은 무용 『화선 오락회』, 남성 중창 『자동차운전사의 노래』와 포연만우를 해치며 전시생들과 전선원호에 성실성의를 다한 후방 인민들의 무생모습을 보여주는 내성중창 『아름다운 고향』, 내성민요독창 『봉마리 가새』 등이 편이어 무대에 올랐다.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창조하시고 세기물 이어 빛내여주신 내세워주시며 뜨거운 사랑과 온정을 거듭 배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자애로운 품이 있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위훈이 깊이 빛나고 있음을 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낸데의 찬가를로 장내를 진감 시킨 공연은 학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복도만 만든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 『승리는 대를 이어』로 끝났다.

영웅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예술적회복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며 당의 복도마리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훤히 시워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영웅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력사를 체현한 전증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엄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시시각각 더해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조국을 위해 퍼 훈련 칭축시킬 궁지높이 풀이꺼보고 신심과 믿음에 넘쳐 걸어갈 생의 앞길을 가슴뜨겁게 암아보는 우리의 전쟁로병들.

그들속에 꽂피는 아름다운 생활, 충정과 보답의 송고한 세계를 여기에 절친다.

영예군인로병을 위한 진정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 박영해전쟁로병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작들마의 싸움에서 한 달리를 잊은 영혼이었다. 그가 사회과학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영결한 활동을 맡으며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일군의 방에서는 긴급회의회가 진행되었다.

『나이도 많고 몸까지 불편한 박영해연구사동지의 생활을 더 잘 돌보아야겠다.』

그날 회의회에서는 대회 전기 간 바령해전쟁로병의 전장과 생활을 잘 봉사주기 위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고 어려가지 조직사업

이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일군들은 사봉차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해 가지고 박영해전쟁로병에게 봉려갔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화운은 얼마나 감동적이었건만,

전쟁로병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는 어머니당의 사랑은 참으로 다심한것이었다.

그림수록 전쟁로병을 위해 바치고 싶은 그들의 정정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것이 어찌 그들의 마음뿐이라.

당에서 민족의 생활 영웅, 진정한 애국자들로 내세우고 있는 전쟁로병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들이

온나라 방방곡곡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그들속에 꽂피는 아름다운 생활,

충정과 보답의 송고한 세계를 여기에 절친다.

한 전쟁로병마리가 안고온 지침

제5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작들마의 싸움에서 한 달리를 잊은 영혼이었다. 그가 사회과학원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영결한 활동을 맡으며 제5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떠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일군의 방에서는 긴급회의회가 진행되었다.

그가 가지온 지침속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주변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어려가지 관리도구들이 들어있었다. 어제나 오늘이나 면 험난한 활동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김순녀전쟁로병은 나파월면 고세월 지주집아이보개로 온갖 천대와 멀사를 막으며 살아온 자기를 새 조선의 당탕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주령님의 그 은혜의 고마워

그런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물소 조국을 넘겼을 때 김책공업 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교원

이여 교수 박사인 하재경경정로병은 우리 앞에 대회참가자를 끌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회참가자를 속초호실에 편히 앉아서 만듭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회참가자들은 전제 대회참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정중한 불위기속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알고 있는데

호실에 앉아서 참가장을 수여받았더니 뜻밖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한없이 따스하고 친근한 정에 목메어 풀이었다는 하재경전쟁로병의 이야기이다.

대통장국의 김순기, 만경대구역 김동선, 강계시 바령호전쟁로병들도 세

상에는 나라도 않고 흐름들도 있지 않아서 참가장을 수여받았던 김정은동지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적으로 만이 아니란 간격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영광에 차운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온다.

우리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는 귀중한 보배로

나는 소식에 접하고 생각이 많았다.

학동강계선에서 흐름이며 쓰러진 천

우물들이 영광의 대회장에 함께 있으

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마음에서였다.

본사기자 정영철

뜻깊은 전승절날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찾았을 때 김책공업 종합대학 금속공학부 교원

이여 교수 박사인 하재경경정로병은 우리 앞에 대회참가자를 끌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회참가자를 속초호실에 편히 앉아서 만듭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특히 대회참가자들은 전제 대회참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정중한 불위기속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알고 있는데

호실에 앉아서 참가장을 수여받았더니 뜻밖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한없이 따스하고 친근한 정에 목메어 풀이었다는 하재경전쟁로병의 이야기이다.

대통장국의 김순기, 만경대구역 김동선, 강계시 바령호전쟁로병들도 세

상에는 나라도 않고 흐름들도 있지 않아서 참가장을 수여받았던 김정은동지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전쟁로병들을 도덕적으로 만이 아니란 간격으로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깁니다.』

제5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영광에 차운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온다.

우리 전쟁로병들은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는 귀중한 보배로

나는 소식에 접하고 생각이 많았다.

학동강계선에서 흐름이며 쓰러진 천

우물들이 영광의 대회장에 함께 있으

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때 로병들은 가슴뜨거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

로병들은 호실에 서니마 정중한 자

세로 일어서서 참가장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은 어서 앉으

라고, 앉아서 참가장을 받으라고 그들을 만류하였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그들이 생활상에 있어서는 아직 오피이 성실함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께서는 그처럼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신데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이날 속초에서는 대회참가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참가장을 수여받는 우리 나라 대회참가자들이 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특히 대회참가자들은 전제 대회참가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정중한 불위기속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알고 있는데

호실에 앉아서 참가장을 수여받았더니 뜻밖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한없이 따스하고 친근한 정에 목메어 풀이었다는 하재경전쟁로병의 이야기이다.

조선인민군 종군기자였던 리인모동지가 조국의 품에 안겨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소 그가 일원인 병원호실을 찾으시여 리인모동우와 같은 선임파의 친신, 흥행한 공산주의자를 가진 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족의 커다란 사람이라고 치하하였다.

리인모동우는 해방직후에 일당한 당원이라고 하시며 천히 그에게 일당당시의 원수님과 자신의 수표가 새겨진 조선로동당 당원증을 수여해주신 어버이수령이다.

평생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바친 피와 풀은 헌없이 소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다르게 당원증과 훈장과 메달들을 받아안았던가.

혁명전사들을 혁명의 길을 함께 갈 영원한 동지, 친형으로 어기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대대로 보신 우리 나라에서만 이런 감동같은 사실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풀어난다.

생각으로 우리는 로병들의 궁지 높은 이름이 새겨진 향기장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뗄 수 없었다.

본사기자 허명철

공화국의 기적파와 승리와 번영의 70년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전면의 새 모습 펼친 역사의 땅

서해곡창황해남도를 돌아보기

당의 천명한 명도임에 나라의 농업 생산에서 기둥이 되어 공화국의 갈피마다에 영광의 자목을 길지 높이 아로새긴 황해남도 예로부터 꾸창지대로 불리웠어도 나라잃은 그 세월에는 농민들의 피눈물이 마를 새 없었던 황남땅이 로동당시대에 철저개벽하였다.

사랑의 생명수 흐르는 물길을 따라

푸른 바다와 청레이는 전야들 파피풀처럼 쪽쪽 뻗어나간 물길을 차창밖으로 지나보내며 수양산기슭에 모서진 위대한 수령님의 명예비앞에 이르러 미마는 숭엄해졌다.

《황해남도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뛰어난 도농사를 큰 물을 뿐이다. 김일성》

한자한자 세겨볼수록 황해남도가 농민들의 뼈는 문제, 식량문제와 경제에서 큰 봄을 말아 수행할것을 비판하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깊이 어려왔다.

명예비앞에서 쉬어 밭길을 묵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농촌경비위원회 일꾼은 황해남도의 농사를 하루빨리 쭉펴우기 위하여 바쁘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현신의 고교가 있어 전야마다에는 생명수를 흘리면서 해마다 황금나라 살례인다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이 땅에 새겨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명도의 자목을 가슴뜨겁게 절감하며 우리는 연예법으로 향하였다.

그리운 7월과 더불어 끝갈데없이 이득복이 펼쳐진 계야마다에 철철 넘치는 흘러드는 사랑의 생명수, 뜨락뜨락 물과 비롯한 각종 동농계 물을 다루고 당면한 영농경우에 전력을 다하는 농장현황, 흘리면서 놀라운 아담한 농촌문화주체들.

비파를수록 연예법에서 머 정보당 100을 넘게 주니 다시 올리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 우렁하신 용성이 풍려오는 것 같았다. 농민들이 근심 할까봐 지령이 이를 승용차에 넘겨 두고 또 전길에 나서시었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우렷이 떠올라 눈물이 터졌다.

이 땅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역사 를 더듬을 때마다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암고 노래 《조전 걸 길을 때면》을 부르곤 한다는 연예법동인들이 있다.

흰쌀이 끓없이 쏟아져나오는 벌이하고 하여 연예법, 온나지금이나 빙번이 없이 블리온 그 이름을 과연 어제와 오늘에 나란히 놓을 수 있다. 말인가.

분동 환경의 그림이 떠오른다. 메랄라며 털, 털에 땀 흘흐르는 전동에 바늘을 감고 대기하고 있는 농민… 해방전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읊친 그림이다.

연예법에서도 조상대대로 전해져온 농민들의 소원중의 소원은 물을 마음껏 쓰며 농사를 짓어보았으면 하는 이었다. 하기에 《용드레법》과 같이 물때문에 생겨 낸 가슴아픈 사연들을 담은 지명들은 그 엄마이인가.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광활한 양백벌에 떠내린 왕의 물을 보내온 구암호로 활하였다.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대인공호수는 바다를 편시켰다. 이웃 일군의 말에 의하면 구암호에서 뻗어나간 물길들의 충연장길이는 연 수십km나 된다고 한다.

위대한 명도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지하시였다.

《황해남도는 우리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꾸창지대입니다.》

우리는 절세위인들의 온 헌로운

손길아래 전면의 새 모습이 펼쳐져온 황남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온 나라에 전하기 위해 기행길에 올랐다.

농장원모두가 《농사박사》로 자리난것이 농장의 큰 자랑이라고 하는 이곳 사람들의 기쁨에 넘친 이아기는 또 얼마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인가.

그린날 보람을 잡을줄 아는것을 큰 재간으로 여겼던 사람들, 처음 봄 뜨락포르일에 물단을 놓았다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체계와 동업과학기술교류, 학업만들에 생겨난 농업과학기술선진실의 력으로 현대농업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농기계를 활용해 하루하루 더 넓은 땅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또 하나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은 황해남도 물길 2단계공사가 린여지고있다.

우리는 흥분된 마음을 암고 경제원동민영용이 배출된 세령군으로 향하고 하시며 자금과 자재, 로역물재까지 물이 주신 우리 수령님.

그나쁜 온정속에 어미개의 판개체계를 형성하는 크고작은 물길을

생겨 나오고 대동강과 평성강의 물까지 흘러들어 연예법을 적시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풍랑시관개체계가 생겨나지 않았거나.

두밀동식포경들이 있다. 지난날 같으면 밤이 아닌 년간에서 밀보리가 살았다고, 깃자꽃이 필수 있다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해당경까지만 해도 20여개의 저수지, 판개면적은 4만여평보밖에 안되던 황해남도에 오늘은 연예호를 비롯한 300개의 대인공호수와 저수지들이 생겨나 수십만평보의 토전들에 익은 밀보리를 거두어 물과 누렇게 흘러놓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헌명한 땅도를 떠나 나라는 손꼽히는 거대한 《동포봉장》으로 전면화 오늘의 황해남도의 사랑찬 한 현실을 어찌 상상할수 있으랴.

진정 이 땅의 힘 톱遁아마다 퍼풀처럼 뻗어간 물길을 따라 흐르는 판개체계가 물과 함께 흘러놓고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헌명한 땅도를 떠나 나라는 손꼽히는 거대한 《동포봉장》으로 전면화 오늘의 황해남도의 사랑찬 한 현실을 어찌 상상할수 있으랴.

파일군현역 사직판의 흥에 모서진 한상의 영상사진문화원에 서니 쉬이 말발음을 풀칠수 암었다.

가지마다 팔스런 사과열매 주렁주렁에 서서이며 일꾼들이 모여 대인공호수와 저수지들이 생겨나 원수를 품고 있다.

그리고 무한한 행복속에 잠겨계시던 나무를 그려놓았는데 좋을 정도 같소. …

파일군현역 사직판의 흥에 모서진 한상의 영상사진문화원에 서니 쉬이 말발음을 풀칠수 암았다.

정말이지 많이 달랐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는 종교를 비롯한 행복지거기지가 되었고, 지금껏 찾았던 피고개 옷을 사라진다라고 하시며 우리 원수님 그날 어깨총이 걸려온다고 말을 하시었으니 그걸로는 험난땅의 현실이었다.

우리는 이 땅에 또다시 펼쳐질 풍요한 기운을 눈앞에 그려보며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든 황해남도의 영상속에 미련된 사랑의 생명수, 황남사람들의 삶의 첫줄기였다.

이 가슴벅찬 사설에는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암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봄날 불유의

마음에 어려워 있는 안락원 오국리로 이어졌다.

그 옛날 물우에 뜬 쪽박과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이곳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 키를 풀며 일떠섰고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오국원과 상점, 타이소와 유치원, 병원과 학교가 펼쳐져 들어서서 그대로 도시를 끌어올렸다.

어리리발에 펼쳐진 경정은 또 열나라 경제한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푸른 바다, 일제시기 반듯한 논밭과 자를 대고 그운데 직선식으로 지은 논두렁들과 물길들, 잘 정리된 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트랙토르들과 절야를 누비는 농기계들이 물수를 감한 자를 대고 말할수 있다고 얼마나 뜨겁게 되었는가.

이 땅에 생겨 수수천년이 흘러갔지만 그 언제 이런 회한한 풍치가 펼쳐진 일이 있었던가.

짧은 기간에 10만여평보의 황해

남도토지정리가 결속.

만복이 꽂 펴나는 사회주의 대지

황남땅에 펼쳐진 번혁의 역사를

온정속에 연예법만이 아닌 도민의

총족들로 어마어마한 큰 물길들이 흘러나온다.

우리는 이 땅에 그려진 《조전 걸 길을 때면》을 부르곤 한다는 연예법

을 듣다 보면 물이 없었다.

어디 이룬인가. 당시의 용대한 대자

이 가슴벅찬 사설에는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암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봄날 불유의

마음에 어려워 있는 안락원 오국리로 이어졌다.

그 옛날 물우에 뜬 쪽박과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이곳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 키를 풀며 일떠섰고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오국원과 상점, 타이소와 유

치원, 병원과 학교가 펼쳐져 들어서서 그대로 도시를 끌어올렸다.

어리리발에 펼쳐진 경정은 또 열나라 경제한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푸른 바다, 일제시기 반듯한 논밭과 자를 대고 그운데 직선식으로 지은 논두렁들과 물길들, 잘 정리된 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트랙토르들과 절야를 누비는 농기계들이 물수를 감한 자를 대고 말할수 있다고 얼마나 뜨겁게 되었는가.

이 땅에 생겨 수수천년이 흘러갔지만 그 언제 이런 회한한 풍치가 펼쳐진 일이 있었던가.

짧은 기간에 10만여평보의 황해

남도토지정리가 결속.

파일군현역 사직판의 흥에 모서진 한상의 영상속에 암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봄날 불유의

마음에 어려워 있는 안락원 오국리로 이어졌다.

그 옛날 물우에 뜬 쪽박과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이곳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 키를 풀며 일떠섰고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오국원과 상점, 타이소와 유

치원, 병원과 학교가 펼쳐져 들어서서 그대로 도시를 끌어올렸다.

어리리발에 펼쳐진 경정은 또 열나라 경제한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푸른 바다, 일제시기 반듯한 논밭과 자를 대고 그운데 직선식으로 지은 논두렁들과 물길들, 잘 정리된 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트랙토르들과 절야를 누비는 농기계들이 물수를 감한 자를 대고 말할수 있다고 얼마나 뜨겁게 되었는가.

이 땅에 생겨 수수천년이 흘러갔지만 그 언제 이런 회한한 풍치가 펼쳐진 일이 있었던가.

짧은 기간에 10만여평보의 황해

남도토지정리가 결속.

파일군현역 사직판의 흥에 모서진 한상의 영상속에 암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봄날 불유의

마음에 어려워 있는 안락원 오국리로 이어졌다.

그 옛날 물우에 뜬 쪽박과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이곳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 키를 풀며 일떠섰고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오국원과 상점, 타이소와 유

치원, 병원과 학교가 펼쳐져 들어서서 그대로 도시를 끌어올렸다.

어리리발에 펼쳐진 경정은 또 열나라 경제한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푸른 바다, 일제시기 반듯한 논밭과 자를 대고 그운데 직선식으로 지은 논두렁들과 물길들, 잘 정리된 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트랙토르들과 절야를 누비는 농기계들이 물수를 감한 자를 대고 말할수 있다고 얼마나 뜨겁게 되었는가.

이 땅에 생겨 수수천년이 흘러갔지만 그 언제 이런 회한한 풍치가 펼쳐진 일이 있었던가.

짧은 기간에 10만여평보의 황해

남도토지정리가 결속.

파일군현역 사직판의 흥에 모서진 한상의 영상속에 암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봄날 불유의

마음에 어려워 있는 안락원 오국리로 이어졌다.

그 옛날 물우에 뜬 쪽박과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이곳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 키를 풀며 일떠섰고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오국원과 상점, 타이소와 유

치원, 병원과 학교가 펼쳐져 들어서서 그대로 도시를 끌어올렸다.

어리리발에 펼쳐진 경정은 또 열나라 경제한가.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푸른 바다, 일제시기 반듯한 논밭과 자를 대고 그운데 직선식으로 지은 논두렁들과 물길들, 잘 정리된 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트랙토르들과 절야를 누비는 농기계들이 물수를 감한 자를 대고 말할수 있다고 얼마나 뜨겁게 되었는가.

이 땅에 생겨 수수천년이 흘러갔지만 그 언제 이런 회한한 풍치가 펼쳐진 일이 있었던가.

짧은 기간에 10만여평보의 황해

남도토지정리가 결속.

파일군현역 사직판의 흥에 모서진 한상의 영상속에 암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봄날 불유의

마음에 어려워 있는 안락원 오국리로 이어졌다.

그 옛날 물우에 뜬 쪽박과 같은 오막살이집들이 논밭가운데 널려있던

이곳에 오늘은 문화주택들이 키를 풀며 일떠섰고 종합적인 전시시설을 갖춘 오국원과 상점, 타이소와 유

치원, 병원과 학교가 펼쳐져 들어서서 그대로 도시를 끌어올렸다.

어리리발에 펼쳐진 경정은 또 열나라 경제한

